

第284回國會
(定期會)

國防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1月10日(화)

場 所 國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적 경비정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보고

審査된案件

1. 적 경비정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보고 1

(17시22분 개의)

○委員長代理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급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군사비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장관 보고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국방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관 보고 이후에 질의응답만 비공개로 하면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적 경비정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보고

○委員長代理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적 경비정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NLL 침범 관련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유승민 간사 위원님 그리고 안규백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해에서 있었던 교전으로 인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았던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 해군이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정책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장광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3분경 백령도 동남방 NLL 일대에서 적 경비정이 도발하여 아 고속정 편대가 대응한 상황 관련된 보고입니다.

우선 상황조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33분경부터 적 경비정 1척이 NLL을 1.2마일 침범을 실시하였고 이에 아 고속정에서 경고통신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적 경비정이 계속 침범함에 따라 아 고속정이 4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적 경비정은 아 고속정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아 고속정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50여 발을 실시하였고 이에 아 고속정에서는 대응사격으로 40mm 함포와 20mm 발칸포 등으로 적 경비정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11시 40분경 적 경비정은 NLL 북방으로 완전히 퇴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피아의 피해 현황은 아군은 인원 장비의 피해는 없으나 우리 경비 고속정의 외부 격벽에 15발 가량의 피탄 자국을 확인하였고 적의 피해는 현재 식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적의 동향은 적 경비정은 NLL 일대에서 완전 퇴각하였고 적 경비정 7척이 등산곶 근해에서 증강 배치되어 있으나 기타 해안포, SA-5, 접적지역에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서 확고하게 수호해야 되겠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NLL상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접적지역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적 도발 발미 제공 자체로 긴장이 고조되고 확전이 방지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한편 접적지역에서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작전 책임지역 내 부대를 현재 장악하고 있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긴장 고조와 확전 방지를 하는 가운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마는……

○이진삼 위원 의사진행……

○委員長代理 劉承旼 이진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국방부에서 보고한 다음에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劉承旼 예,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여기 비공개로 할 사항 꼭 있어요? 비공개로 할만한 사항은 질의하지 않을 텐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삼 위원 걸핏하면 비공개, 비공개 하는데 기자들 공개적으로 다 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으로써 국방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 뻔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비공개 해 가지고 기자들 전부 그렇게…… 나는 공개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공개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겠다고 보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로 하시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이진삼 위원 공개로 합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장관께서 공개 질의응답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개될 수 있는 사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劉承旼 예, 이진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여기에 현재 해군 제독 나와 계신가요, 해군 장군?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예, 정보작전처장입니다.

○이진삼 위원 합참의 무슨 제독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제독입니다.

○이진삼 위원 합참에 있는 해군 제독으로서는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인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해군은 3성 장군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범했다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여러분들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내용 면에서 볼 적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도록 돼 있는데 보도자료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겠어요.

여기 보도자료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중공의 어선이 1척이 넘어왔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넘어왔으면 이게 일종의 침범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월경했다고 해도 보고가 되

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 때는 재들이 의도적으로 도발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온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데 중국 어선이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와 가지고 그것을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는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어선이 움직이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국 어선을 추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따라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생각한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경고사격을 하자…… 경고사격은 조준사격이 아니고 일종의 너희가 넘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격인데 또 경고사격을 하기 전에는 경고방송도 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경고방송해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경고사격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내용도 이왕이면 적어 주는데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북한 경비정이 아 고속정을 향해서 직접사격을 가해 왔음’은 조준사격했다는 얘기를 직접사격이라고 표현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직접사격, 어떤 것은 조준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나는 얘기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에 탄종이나 몇 발을 조준사격을 해 왔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고속정은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경비정을 퇴거 조치’ 했는데 고속정은 뛰며 경비정은 뛰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경비정을 고속정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한 150t 정도 규모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통일돼 있는 모습의 함정인데 북한은 선박이 각각 전부 차이가 많습니다. 작은 것은 한 130여 t부터 큰 것은 한 300t까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함정을 경비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은 경비정이라고 하고 저희 해군은 고속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경비정과 고속정 간의 전투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경비정은 퇴거 조치하였음’ 무슨 목선이나 보내놓고서 말이야. 퇴거 조치했음, 격침시켰음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다음부터 경비정은 뛰고 고속정이 뛰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를 잘해달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피아 교전 간 아군 피해 상황은 없으며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이랬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오늘 보도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보고 내용은 40mm 함포나 20mm 발칸인데 원래 발칸은 대공화기로서 들여온 것을 우리가 화력이 좋고 동시에 그것이 분당 칠백몇 발인가 나가게 돼 있지요? 나 그것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화력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뛰냐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경비정과 고속정 이러는데 우리도 경비정이라는 게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우리도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육군……

○이진삼 위원 우리도 군 경비정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도 육군 경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함정의 이름을 붙이는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혼돈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재들이 그런 경비정을 NLL 근처에 올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전투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정 아닙니

까, 재들도?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재들은 경비정이고 우리는 고속정이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이왕이면 교전이 붙었으면 침몰시켜야지요. 우리 군이 뭐하는 거예요?

지난번 1999년도 그때 상당히 뭐 했지만 침몰시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우리 막강한 해군이 침몰시키니까, 그때 나는 현역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3년 내에 당한다. 내가 공산당 지휘관 같으면 분명히 나도 목사발 만든다.’…… 그런데 2002년도, 3년 후에 6월 29일인가 우리 당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걸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왜 당했느냐 이거야. 내가 그랬거든. 3년 내에 당한다고 했는데 딱 3년 만에 당했어.

우리 군대생활 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군대가 좀 독한 맛을 보여 줘라 이거야.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지.

군대의 기본 요건이 뭐야? 아까 무슨 제독 얘기해 봐요.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바로 그거야. 생명을 바쳐서 보호해야지. 그러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 지금 공산당은,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대듭니다. 강력한 군대가 좀 돼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난번 22사단 민간인 월북 사건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때 내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월북 사건이 생겼으면 개가 월북한 것하고 사람이 월북한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합참 본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가 넘어갔을 때하고 사람이 넘어갔을 때 다른 게 뭐야?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황준성 사람이 넘어

갔다는 것은 우리의 경계태세에 조금……

○이진삼 위원 더 크게 얘기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황준성 개가 넘어간 것과 사람이 넘어간 것이 다른 것은, 사람이 넘어갔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이진삼 위원 판소리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정보 누설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누설 사항. 사람이 넘어갔을 때는 이러한 우리의 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는 정보 누설 사항이 있어요. 개는 정보 누설을 못 해,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병사가, 당신들 내가 정보 누설 사항이 뭐냐고 하니 뭐라고 보고가 들어왔느냐? ‘2005년도에 군대생활을 했고 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보 누설 사항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대대 위치도 얘기할 수 있고 연대 위치도 얘기할 수 있고 사단 위치도 얘기할 수 있고, 고가초소는 옛날에 없었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소초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취약하고 뭐고 한 것들 다 얘기했을 거라 이거야. 그런데 비밀 누설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뭐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정보 누설 사항이 뭐냐?’ 하고 내가 따지고 들었는데 후배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내가 국방부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군에 있을 적에 지휘관들 공관이나 관사에 자기 방을 따로 정해 놓고 전투연구실을 만들라고 했어요, 안 만들라고 했어요? 얘기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다시 한번만 말씀……

○이진삼 위원 전투연구실을 공관에 방 하나를 해서 자기가 항상 가면 일정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교범을 연구하고 전투 연구를 하라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해야지요. 그래서 정보 누설 사항 등 내가 그날 보고서를 보고 지적했는데, 지금 합참 본부장은 뭐라고 했어요? 정보 누설 사항이 개하고 사람하고 틀린 것을…… 무슨 말인

지 알았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황준성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보도자료니 뭐니 만들 때는 명확하게 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꼭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정, 고속정 하는데 경비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속정인데, 이것 뭐 상대가 돼? 그다음에 알아버지하고 싸웠는지, 똑같은 젊은 놈들끼리 싸웠는지, 애하고 어른하고 싸웠는지 하는 것도 분명히 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 나는 보도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군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조질 건 아니지만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백분 활용해서 앞으로 침몰시켜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침몰 못 하면 군인들 옷 벗을 각오해야 돼요. 군인이 뭐야? 강력한 것을 좀 보여 줘요. 공산당은 우리가 강력할 때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급하게 소집이 돼서 별도로 정한 질의 순서도 없고 발언 시간도 여야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 질의를 생각해서 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장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장수 위원 우리 군이 참 고생했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NLL에 대한 수호의지를 우리 군 입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밝힌 교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의 보복은 거의 확실합니다,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일 적이 어떤 보복을 위해서 재차 도발을 할 경우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제압하고 완전히 격침을 하고 침몰을 시킨다면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북에서 주장한 사항이 ‘사죄 요구’,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또 ‘자기 수역에서

의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다’ 또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귀대 중에 발포를 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도에도 나왔습시다마는 NLL 바로 인근해 가지고 중국어선 한 척이 배회 중인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북한 경비정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NLL을 월선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능성을 절대로 우리가 닫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저희가 경고하는 방송을 다섯 번이나 했고 분명히 월선했다는 것을 여러 번 알려 줬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은 분명히 자기들이 월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간 격차를 두면서 계속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인터넷에 나왔습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의 피해가 ‘1명 사망에 3명 부상이다’라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진실은 어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잘못된 첩보가 아닐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첩보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첩보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번 사안이 저 밑에 있는 전술제대의 우발적인 도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군 수뇌부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열어 놓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 예를 들면 이렇게 교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의사소통체계, 통신체계, 그 정도는 남과 북이 어떤 채널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과거에 실제로 저희가 북한과 이러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여러 번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경고통신을 보내고 하여튼 저희가 정기적으로 통신을 시도하면 서로 응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빈도가 떨어지다가 이제는 그러한 것을 북측에서 전혀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다시 남북이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되면 다시 이런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교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장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더라도 북한 경비정이 직접적으로 우리 함정에 대응사격을 한 적은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함정에다 대응사격을 했으니 이것 역시 혹시나 적이 우리의 경고사격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경고사격을 적의 입장에서 이게 자기들 함정에 직접 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를 했을 개연성은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경고사격에 대해서 북한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경고사격을 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방송을 했으며, 경고방송을 별도로 하면서 ‘이제는 경고사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빨리 방향을 틀어서 이 지역을 나가라’라는 방송을 하고 난 뒤에 경고사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북한 함정이 모든 통신수단을 가령 다 꺼 났다면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함정이 그 통신망은 열어 놓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주로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교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응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응신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의 교신에 대해서 어떤 해당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유야 어떻든 우리 함정에 직접적으로 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파사격을 하고 북측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NLL이랄지 접적지역 DMZ랄지 거기에서 계속 총소리가 나고 포사격이 나오고 피아간에 그 자체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소통체계는 확립을 시켜 줘야겠다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어떤 군사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면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면에서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서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旻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 결과적으로 작전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적의 의도가 뭐냐, 의도적으로 침입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했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이?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서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경고통신을 정상적으로 받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 척만이 움직이면서 어떤 심각한 도발을 계획했느냐라고 보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상황 보고에 보면 ‘10시 33분에 적 경비정 한 척이 남하 기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것을 딱 보면 적이 어떻게 보면 투항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목표물이 뚜렷이 없는데 남하 기동했다,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사향을 보면 그쪽에 중국어선이 한 척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의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국방위에 보고할 때하고는 내가 볼 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줘야지만 그 사항을 보고 적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적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적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나 이 상황 전개를 보면 나름대로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경비정이 아무런 목표물 없이 남하했다 그러면 한 척이 침범하기 위해서 남하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귀순을 하기 위해서도 남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다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정리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11시 27분에 NLL을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저번에 2함대 가셔도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전협정상에서 사격을 우리가 먼저 한 겁니까, 북한이 먼저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먼저 경고통신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고사격을 배에서 이격된 데다 사격을 했고……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배에다 쏜 것은, 저희는 쏘지는 않고……

○서종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격을 먼저 했다는 것은 총소리가 누가 먼저 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피탄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에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사격하는 것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격된 거리에서 사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뜻을 알아들었을 때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방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딱 났다, 이것은 경고사격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갔을 때

도 경고사격은 앞으로 신호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함대 가셔도. 신호탄으로. 그럼으로써 이것이 경고사격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자, 그래서 인식이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범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실사격을 한다든가 기타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행히도 저희들이 경고사격을 했는데 북 경비정이 조준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서종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봤다, 다행히 피해를 안 봤는데 피해를 보면 우리는 피해가 더 많은 겁니다. 적의 경고든 뭐든. 그럴 바에야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법으로 경고사격을 할 바에야 최초에 경고사격 개념, 이미 경고사격도…… NLL을 36분이니까 침범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사격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피해가 있었다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잘못하면.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사격을 해서 우리가 대응사격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고 그런 탄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이미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약 1시간 동안 정도, 10시 33분부터 11시 40분이니까 약 1시간 동안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서종표 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육군의 백령도에 있는 해군, 해병대, 공군비행장, 또 육군의 대응부대 이런 데까지 상황 통보가 다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것은 다 통보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그것은 지금……

○서종표 위원 그런 것이 상황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

회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서해에서의 NLL에서의 이런 도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해군, 지금 말씀하시는 백령도에 있는 K9과 같은 장거리 화기, 그다음에 공군력, 이것을 다 같이 전부 2함대의 통제하에서 작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종표 위원 내가 기본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상황 전파가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됐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지금 상황 확인한 것으로는 오늘 그렇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항은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황 전파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그 계획이 시행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김태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팀을 보내 가지고 살살이 전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해서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언론에 나오는 건데요, 1명 사망, 3명 부상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국방부에서 확인된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추측 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반파라고 또 언론에 나오는데 이건 국방부에서 확인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반파라면 아마 그 배가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한 9마일 정도의 속도로 서서히 다시, 거기서는 서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항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반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부 피해를 입은 것만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종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경고사격의 종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층 깊게 검토를 해서 적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우

리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든가 해서 차후에도 이런 지역에서 충돌을 할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런 염려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작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 보고 저희가 야전예규나 교전규칙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잘 보완해서 다음 작전에는 더더욱 더 완벽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旻 서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분, 홍준표 위원님이나 김동성 위원님 중 한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위원 예.

○委員長代理 劉承旻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 NLL 침범했다는데 이게 개념으로 보면 남침인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남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에서는 하여간 저희가 통제하는 지역에 북한이 들어온 것을 일단 남침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그림상으로는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우리가 남침으로 같이 통칭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영토 침범인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아는…… NLL은 하나의 영토분계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차제에 서해 방위능력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국민들이 서해 교전이 있고 또 서해에서 이런 도발이 계속 일어난다 이겁니다. 동해에는 NLL인가 이게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있습니다. 동해에도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동해에도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홍준표 위원 동해는 지금 말하자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서해는 지금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차제에 서해 방위능력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홍준표 위원**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 불안해하고 동해하고 달라서 서해는 보면 백령도 같은 경우에 바로 북쪽에 목구멍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백령도하고 서해 같은 경우 보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차제에 서해에 북한이 도발을 해도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장관이 이 기회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형상으로 보면 북한의 해안이 쪽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한 10여 마일 떨어진 선을 따라서 NLL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은 항구로부터 모든 공·해군력이 저희 쪽에 투입될 수 있고 또한 지상에서는 지상 화기인 해안포나 또는 장사거리 화포로써 저희 해군 함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의 공군력이 또 그쪽에는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이쪽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항상 함정이 추진 배치되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항구에서 나오면 바로 NLL에 다가오기 때문에 금방 항구에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배를 충분히 전방으로 빼서 배치해 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5도서, 즉 백령도와 이쪽 연평도를 포함한 대청도, 소청도, 우도 하는 총 5도서가 떨어져 있는데 그 5도서에 저희 해병이 배치되어서 해병으로 하여금 섬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섬에 가지고 있는 화력 수단을 가지고 해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공군력으로 그 지역을 공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상군, 해군, 공군의 능력을 가지고 그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이쪽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많은 능력이 이쪽에 추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는 상당히 많은 함정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지상에서의 화력 능력이 이쪽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병 능력도 대략 총 4000명이 좀 넘는 그런 규모의 해병이 백령도,

연평도 그리고 나머지 도서에 배치되어서 모든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만약 서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공군도 바로 출동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적어도 1개 공군 편대가 그 지역에서 공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공군은 출동하고 하는 데 몇 분 정도……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이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긴, 한 10여 분, 10분 이내에 바로 해당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서해에는 늘 공군이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대략 인천 앞바다, 영종도 이쪽에 저희 공군 초계하는 전력이 항상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旻** 홍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남북 간에 서해 NLL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장병들과 장비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2시에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긴급보고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번 서해 NLL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를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렸고 바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나,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또 그것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쪽 토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난 정부 같으면 핫라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핫라인 구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앞으로 남북 간에, 현재의 미·북대화 또 6자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남북 간에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게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오늘 같은 서해 교전을 북·미 간의 대화의 진전과 남북 간의 경색, 그리고 작게 5029에 대한 완전한 남북 간의 합의 문제, 개성관광 재개 문제, 쌀이 아닌 생색 내기용 옥수수 지원 문제 이런 다양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요소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다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앞으로 일어날 예측하지 못할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 만반의 대비를 갖추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昉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늦지요? 북한의 첩보, 신호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분석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여러 가지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큼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 한 두서너 가지라도 이리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어차피 토의 형으로 대통령께서 주관하셨습니까마는 거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쪽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최근에 나오는 정보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래도 하여간 신빙성이 좀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김장수 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에 대한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정말 의도적이라면 왜 겨우 배 한 척 갖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우발적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경고통신을 해 주었는데 왜 굳이 자꾸 들어왔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제정세적인, 또 한반도 정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미·북대화니 6자회담이니 여러 가지가 지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희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2차 연평해전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발이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때는 2차만큼은 분명히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때는 북한 배가 몇 척이나 내려 왔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때는 북한의 두 척이 저희 배 한 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르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총을 맞기는 맞은 거지요? 밖에 자국이 있는 것 보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15개 흔적이 있다는 거고…… 15

발을 맞은 거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때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었는지 그런 명확하지 않은 사진을 보내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총탄 자국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배가 들어오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어떤 화기로 사격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맞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사용했던 화기가 이번에 쏜 것보다 조금 강력한 화기였다고 한다면 우리 배가, 또는 우리의 병사들의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교전수칙이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 경고사격을 할 단계에서는 적의 무기의 사양을 알고 있으니까 적 사정권, 우리 사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적 사정권 밖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유승민 간사,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김태영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는 저희 배가 뒤로 빠지면, 거리를 두기 위해서 빠지면 적은 더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더더욱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가능한 한 적의 배가 들어오면 저희 배를 보여줌으로써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뒤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거리를 떼기 위해서 옮겨 간다면 아마 적은 더더욱 저희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깊이 들어오는, NLL을 더 많이 월선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이 NLL을 넘어올 때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이 사정거리 밖에 있을 때 그런 경고사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그쪽으로 다가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가가지 말고 사정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경고사격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안전하지 않았느냐, 이게 화력이 됐으면 우리가 인명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있었던 작전을 자세히 분석해서 저희 대응 방법을 좀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다음에 적의 배는 침몰을 안 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이번에는 격파사격 자체가 침몰보다는 어떻게 보면 NLL 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몰시키는 쪽으로 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화력을 했다면 분명히 침몰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함포하고 발칸 이외에 지금 이 고속정에 다른 화력 수단도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이 고속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40mm 함포와 발칸2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전부 다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 40mm 함포만 가지고 격침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도 여러 발 사격이 됐을 때는 충분히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면에서 이번의 군의 대응 태도는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적의 보복이 또 분명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劉承旼 委員 유승민 위원입니다.

방금 장관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고속정이 저쪽에다가 대고 응사를 했을 때 지금 방금 장관 말씀은 적을 NLL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의……

○劉承旼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사격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旼 委員 우리가 사격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고속정을 지휘하는 사람이 적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쏠 수 있는 화력을 마치 덜 쏜

거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 의미보다는 우선 1차 저희가 사격을 해서 적이 저희한테 사격하는 것을 일단 저지시킨 겁니다. 그리고도 조금 아무래도 지켜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하면 그런 거 쳐다볼 거 없이 그냥 계속 사격을 해서 완전히 격침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기본 생각은 NLL 침범한 적을 우선 NLL 바깥으로 밀어낸다 하는 것이 우선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고사격이라면 말이 되는데 적 경비정이 우리한테 조준사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사를 하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적을 격침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걸 그냥 NLL 밖으로 쫓아 내보내기 위해서 약하게 사격하는 그런 게 가능이나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적이 저희에 대한 조준사격을 저희를 적대시하는 조준사격을 못하게끔 일단 적이 사격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일단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더 이상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격침이 안 돼도 더 이상 사격을 안 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사격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지휘관의 판단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은 지휘관이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함대 사령관이 총괄 판단을 해서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적의 함정이 저희의 사격을 받고서는 바로 배를 돌려서 NLL 밖으로 나가려는 기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사격을 하질 않았습니다.

○劉承旼 委員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오늘 북한이 발표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조선군이 엄중한 무장 도발행위를 감행했고 자기들은 11시 20분경에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 군함선 집단이 우리 해군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이래 해놨거든요.

제가 북한 성명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주장은 자기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NLL 바깥으로 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따르면서 사

격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셨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旼 委員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북한 함정이 오면 NLL을 조금 침범했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고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다시 돌려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북한의 선박이 바로 거기에 응해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교신에 응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고사격을 했고 저희한테 대응을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적 경비정이 우리한테 50발 쏘 때 이 50발을 먼저 쏘고 우리가 대응사격을 할 때는 적 경비정은 우리한테 사격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건 그 순간적인, 아마 저희가 사격을 받는 가운데 사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劉承旼 委員 서로 간에 사격이 있었던 거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북한이 오늘 발표한 북한 경비정은 NLL 쪽으로 돌아가는데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발포하지는 않았나 이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는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劉承旼 委員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이거 동영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땐 그 교전 상황에서 사실 거기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요, 누가 찍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고속정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CCTV 하듯이 자동으로 동영상이 기록되는 그런 장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劉承旼 委員 우리 해군에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고속정에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劉承旼 委員 다른 선박엔 그런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초계함 이상에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攸 委員 그러니까요. 초계함 이상에 그런 장비가 있으면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해도 우리가 동영상도 딱 내놓으면 이게 틀린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고속정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구만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고속정이 배가 작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스물일곱 여덟 명 정도 타는, 작습니다.

○劉承攸 委員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번 앞으로 제가 그것도……

○劉承攸 委員 그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오늘 성명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해서 가지고 사실이 다른 거는 바로 반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라는 게 북한의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 같으면 합참 같은 합참 최고직위라고 제가……

○劉承攸 委員 아니지 않습니까? 합참은 북한의 총참모부 아닙니까? 그거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라는, 이 최고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성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성명을 낼 때는 조평통이 내든지 누가 내든지 죽 내는데, 그렇죠?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 합참 정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인민군 최고사령부라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교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같으면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사령부라는 의미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김정일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

습니다.

○劉承攸 委員 이게 만약 김정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은 김정일의 의지를 실어 가지고 낸 성명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성명이 센 거 아니냐. 그렇죠, 강도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攸 委員 성명이 세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굉장히 오래갈 수 있다.

아까 여러분께서 보복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태가 성명이 나온 그 수위가 일단 사실 관계가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 북한이 발표한 게 상당히 다르고 그다음에 성명의 출처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나온 성명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일, 예전에는 김정일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북한의 최고위층의 지위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거는 북한이 굉장히 의지를 싣고 한 성명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과거에 저희가 1, 2차 연평해전을 겪었던 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데서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성명전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劉承攸 委員 98년, 99년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했구요. 2002년에는 서해교전 한 달 후에 우리 장관급회담에서 북 측 단장이 그냥 유감 표명을 했구요. 2009년 올해 1월에도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했고. 북한 최고사령부의 성명으로 나온 거는 2009년 3월에 딱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키 리졸브 훈련 비난 때.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성명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거고 팩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만반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劉承攸 委員 오늘 정운찬 총리께서 ‘우발적 사태다, 우발적 사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우발적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땐 총리께서 그 당시에 국회의 답변 중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劉承攸 委員 뭐라고요? 국방부에서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고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이 사안이 있는 내용을,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국회에 답변하고 계신 가운데 알려드렸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사안을 확인을 못하신 상태에서……

○**劉承攸 委員** 우발적이라는 말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면요? 그렇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리고 지금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규백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최근의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북한의 수뇌부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우발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러면 총리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우발적 충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아마 총리께서는 그냥 얼핏 들으신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총리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오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劉承攸 委員** 장관께서 총리한테 이게 우발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드린 건 아니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 자체를 ‘이런 사안이 오늘 있습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러면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총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 충돌이다 이렇게 사태를 규정하는 게.

○**국방부장관 김태영** 내가 볼 땐 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걸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劉承攸 委員**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총리가 국회에서 마음대로 국민들 다 보는데 ‘이거는 우발적 충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劉承攸 委員**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때 상황에서 아마 여러 분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총리님께서 아마 말씀하시다 보니까……

○**劉承攸 委員** 아무리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도

우발적이다 이것은……

○**국방부장관 김태영** 혼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劉承攸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攸 委員**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한테도 그런 걱정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고를 드렸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대통령께서도 그 걱정을 하셨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교전수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합참 보고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전수칙에 보면 경고통신 2회, 경고사격 2회, 격파사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攸 委員** 그런데 오늘 갖고 오신 거 그다음에 그동안 NLL 침범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한다면요? 당장 오늘만 해도 교전수칙에는 경고통신 2회인데 오늘 5회를 하셨다 그러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다음에 경고사격도 2회인데, 이 경고사격 2회가 무슨 2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劉承攸 委員** 경고사격 오늘 4발 하셨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거는 한 번에 쏘면 4발이 나간 거고요. 경고사격 2회라는 것은……

○**劉承攸 委員** 오늘 1회만 했는데 바로 사격이 왔구만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劉承攸 委員** 그렇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劉承攸 委員** 그러니까 이 교전수칙 2회, 2회라고 적어 놓은 것을 이것을 조금…… 늘 저희들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 가서 느끼는 게 현장에서 2회 그다음에 경고사격 2회 이 숫자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렇다면 이게 지킬 수 없는 거라면 굳이 교전수칙이 경고통신 2회다, 경고사격 2회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번 작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런 교전규칙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저희는 이걸 가능한 한 현지 지휘관에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해서 위에서 결심하는 것은 더더욱 시간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현지 지휘관한테 저희가 지침을 주고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재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안규백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아까 유승민 위원 말씀에 총리 답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무슨 사항이 있을 때 보도자료나 답변 한 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투리 썼다가 기합 많이 받았어요, 경상도 사람들.

한 가지 얘기할까요?

소대장이 포탄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마카 옆뜨려.’ 그랬어요, ‘마카 옆뜨려.’ 그러니까 충청도 못 들었고 고개 들다가 다 죽었어. 조금 이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까만 코롬’ 그랬어요.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또 다 죽었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아까 여기 보고 내용 중에 경비정 1척이 남하해서 기동을 포착했다고 그랬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 고속정 2척이 쫓았어요, 그렇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2척이 쫓았죠?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여기 보면 2척이야. 그렇죠? 그

런데 우리한테 2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고서에?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런 것 자체가 벌써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0시 33분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 자 꼭 써야 돼요? 10시 33분이면 ‘33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꼭 입장이 곤란할 때에는 그렇게 써도 되지만 이런 때에는 ‘33분’ 해야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국민이 신임을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아 2함대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통신으로 했어요, 방송으로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경고방송을 경고통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군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식으로 한다면 경고방송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는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경고통신은, 통신은 넓은 의미의 통신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신호통신, 음향통신, 통신에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경고방송이지요, 분명히?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게 아마 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요. 경고방송이라고 그래야지요.

‘2함대’라는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 없지요, 보안상.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직접 사격이라고 했는데 조준 사격을…… 직접 사격이 맞아, 조준 사격이 맞아?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보기에는 직접……

○이진삼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지요? 직접 사격하고 조준 사격하고 똑같은 의미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조준 사격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 그러면요. 직접 사격할 때 조준해야지요. 그리고 직접 조준 사격은 뭐냐 하면 곡사포병이……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직접·간접 이렇게……

○이진삼 위원 직접 사격은 뭐냐 하면 곡사포로 쏘는 게 아니라 적의 탱크가 나타났을 때 직접 조준해서 쏘는 게 직접 사격이에요. 포병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사 용어 확실히 알고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 사과요구를 하지 않고 저 놈들이 사과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과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사과요구 했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나중에 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벌써 우리는 대응이 미흡해. 재네들이 사과요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사과요구를 하면 우리가 잘 못 하니까 이게 거꾸로 하는 것밖에 안 돼. 우리가 얘기해야지. “왜 들어왔느냐, 들어와서 우리가 경고사격 했는데 너희는 왜 직접 사격을 했느냐 말이야, 우리는 경고했지 않느냐, 그리고 경고방송을 했지 않느냐, 왜 했느냐.” 하고서 분명히 이쪽에서 나가 주어야지.

그런데 재네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또 적반하장 격으로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잘못된 것처럼 재네들이 사과를 요구했다고 또 나왔지요?

(안규백 간사, 유승민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도 같은 대응조치를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대응조치 했더라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다고 강력히 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함참에 말이에요. 사실 장교가 된다는 건 지도자의 조건 중에 그 나라 언어에 대해서 능통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보고서가 들어올 때마다 불만이 있는 것이, 항상 보면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간부들, 특히 장군들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가지고 오면 검토하고, 아까 총리께서 무슨 얘기를 해 가지고서, “우발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장관이 그때마다 상황을 명확히 해 주어야지. ‘우발이다.’, ‘도발이다.’ 하는 것 분명히 해서……

그다음에 육하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작전본부장 여기에 왔지요? 육하원칙이 뭐지요?

○함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황준성 육하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입니다.

○이진삼 위원 맞아요,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죽 말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외교통상부하고 군인하고 다르지요? 배에 외교통상부 요원 타세요? 통일부 요원 타세요, 배에? 안 타지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군인 노릇을 하는 거야. 국무회의 때에도 그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통일부 얘기 하더라도 군인은 “처부썩야 됩니까.”…… 장관은 나가고 그 사람들, “아, 그러지 말고 외교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같이 휩쓸려 나가지 말아 달라는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특히 보고 문제는 내가 보고 많이 받아 봤는데 그것은 간부들이 직접 검토 좀 하고서 하고 명확한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했어요.

○委員長代理 劉承旼 혹시 질의……

홍준표 위원님!

○홍준표 위원 아까 유승민 위원 질의할 때 장관 답변 중에서…… 총리가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2시, 개의되자마자 아마 정부 보고 형태로 오늘 서해 교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질의해서 답변한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우발적 충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던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준표 위원 유승민 위원, “우발적 충돌이 있었다.” 그런……

○委員長代理 劉承旼 언론에 그렇게 기록이 되

어 있고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답변을 잘못 써 준 것이지.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저희가 써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홍준표 위원** 아니, 국방부나 어디에서 내용을 총리한테 주었을 것 아니에요? 총리가 지금 오전부터 국회에 나와 있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은 사실…… 아마 2시경에는 저희도 한참 상황 확인, 조치 이런 것으로 바쁜 와중이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초안 만들고 청와대에 회의를 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충돌인지 계획적 도발인지 이것은 국방부나 군사 관계자들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총리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려면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 그것이 우발적 충돌인지 계획적 도발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만약 총리가 ‘우발적 충돌’로 이야기했다면 이게 아주 잘못된 보고예요.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 그것이 계획적 도발인지 우발적 충돌인지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좀 더 분석·검토해 본다…… 이쪽에 정보라인도 다 있잖아요. 전자장비도 있고 인적, 휴먼 리소스도 있고 다 있잖아.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유승민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충돌로…… 나도 아까 TV 보기는 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만약 그렇게 보고했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진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특히 국방부 보고는 그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게 민심을 좌우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 정확한 용어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만약 이 보고서를 썼다면 국방부에서 썼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썼겠지, 총리가 통일부한테 그것 받았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드린 것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총리 보고 내용 국회 속기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방부에서 써 주었다면 국방부에서 무슨 근거로 우발적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누가 써 주었는지 아주 경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혹시 다른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을 안 하고, 잠시 대정부질문을 유보하고 발언하신 게, ‘오늘 벌어진 서해 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더라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면 국민들은 국방부가 그렇게 당연히 보고 해서 한 줄로 알지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못하셨으면 즉시 총리한테 교정을 시켜드려야지 국방부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동 성	김 장 수	서 종 표	안 규 백
유 승 민	이 윤 성	이 진 삼	홍 준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울
전 문 위 원	이 규 담

○정부측 참석자

국방부

장	관	김	태	영
국 방 정 책 실 장		장	광	일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책 기 획 관
기 획 조 정 관
군 비 통 제 차 장

우	주	하
류	제	승
김	형	기
문	성	묵

합동참모본부

합 동 작 전 본 부 장
정 보 참 모 부 장
정 보 작 전 처 장

황	준	성
임	응	순
이	기	식